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과 생태적 정의*

최 병 두**

Rawls' Liberal Theory of Justice and Ecological Justice*

Byung-Doo Choi**

요약 :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서있는 롤즈의 정의론을 환경정의의 개념화를 위해 응용함에 있어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개관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롤즈의 정의론이 환경자원의 정의로운 분배의 개념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 후, 롤즈적 정의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로 확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장된다. 롤즈의 이론에서 자연자원의 상태는 정의의 객관적 조건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정의로운 생산과 분배의 실제 요소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정의론은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분배의 결과에 대한 실제적 정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이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로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자유주의, 나아가 서구의 과학적 전통은 인간과 자연간의 존재론적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어 : 롤즈의 정의론, 환경정의, 생태정의, 정의로운 자원 분배, 동물권리, 내재적 가치

Abstract : This paper considers some significances and limitations in application of Rawls' liberal theory of justice to conceptualization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justice. It first reviews Rawls' liberal theory of justice, then examines how his theory of justice considers natural resources and can be applied to develop distributive theory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finally explores what kinds of problems would be generated when Rawls' theory of justice is to be extended to animals and other natural components. In Rawls' theory of justice the status of natural resources is described as a objective condition for justice, but it is argued that natural resources should be seen as a substantial component of jus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t also can be stressed that his theory of justice does not secure a just result of resource distribution, even though it has a great significance for just procedure of distribution. Finally, it seems hardly possible to extend Rawls' theory of justice to animals and other natural components to develop a Rawlsian theory of ecological justice, because liberalism and Western tradition of science on the basis of which Rawls' theory of justice has developed presuppose an ontological dualism of human beings and other natural components, and hence cannot recognize the inherent value of nature.

Key Words : Rawls' theory of 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ecological justice, just distribution of natural resources, animal right, the inherent value of nature.

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주의는 이러한 질서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 및 관리정책, 나아가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방식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상을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함에 있어, 우선 문제가 되는 점은 자유주의 사상이 자연에 관한 직접적 관심을 배제하고 있다고 흔히 가정된다는 점이다. 즉 자유주의는 인류중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우선 강조하는 반면, 단지 간접적이고 도구적 가치

만으로 비인간적 자연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 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회계약론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결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의 논의가 그러한 것처럼, 자유주의에 대한 평가 역시 이중적이라는 점이다.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오늘날 환경문제가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엄정하게 준수할 경우 해결되거나 또는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다. 그러나 비판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자유주의 사상이 환경문제를 고려할 수 없거나 또는 무관심하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오늘날 만연한 환경문제나 환경 불평등이 자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연구년)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Professor,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bdchoi@daegu.ac.kr.)

유주의에 기초한 정치·경제체제에 내재된 부정의의 또 다른 측면으로 간주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에 관한 논점들 및 환경문제에 관한 접근법과 관련하여, 사실, 현대 정의이론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롤즈(Rawls)도 자신의 정의론이 환경적 차원에 원용가능한가의 여부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연구자들은 환경윤리를 위해 롤즈를 응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확인하고, 롤즈적 윤리는 적합한 장기적 환경윤리를 위한 적절한 기반이 되질 못한다고 결론 지운다(예로, Thero, 1995 참조). 나아가, 이들은 자유주의와 환경론(특히 분배적 차원에서)은 병존 가능하지만, 생태주의와 자유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고, 진정한 생태 윤리는 자유주의가 제시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Dobson, 2000, p.165). 즉, 롤즈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분배적 정의론으로 자원의 사회적 배분에 관한 정의론으로서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에 있어 환경적 또는 생태적 정의를 개념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동물 또는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에 관한 논의로 확장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정의론을 환경문제에 응용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일부 연구자들은 롤즈의 정의론이 사회의 기본 구조를 논의의 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의론이라고 할지라도, '무지의 장막'과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된 그의 정의론의 기본틀은 환경 문제에 적용하여 일종의 환경정의론을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롤즈의 정의 이론은 환경정의의 개념에 내재된 관심들에 조응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고, 게다가 그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이론이나 여러 가지 주요 개념들은 환경정의에 관한 기존 논의에 어떤 유의한 이점들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롤즈 및 그 외 대부분의 자유주의적 정치이론가들은 환경에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롤즈적 자유주의는 환경정의에 관한 문헌에서 언급된 이슈들을 적절히 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Bell, 2004, 289).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과 관련하여, 오늘날 자유주의 입장에서 가장 정교하고 체계화된 정의론으

로서 롤즈의 이론을 개관하고, 나아가 그의 정의론적 관점에서 환경정의가 어떻게 개념화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의 이론을 동식물 또는 자연생태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경우 어떠한 의의와 한계를 가지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지리학에서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논의는 이미 30여 년전 하비(Harvey, 1973)와 스미스(Smith, 1977)에 의해 도입, 심도 있게 논의된 이후 도시 공간의 실태 분석이나 도시공간 계획에 있어 규범적 논의 등으로 지리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지만, 국내 지리학계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고찰되지 않고 있다¹⁾.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서있는 롤즈의 정의론을 환경정의의 개념화를 위한 응용에서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개관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롤즈의 정의론이 환경자원의 분배 정의의 개념화와 원칙 설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 후, 롤즈적 정의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물들로 확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 : 개관

롤즈(John Rawls)는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도덕적, 정치적 입장의 근저에 깔려 있는 정의의 원칙들을 밝히기 위하여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정교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공정성에 합의하게 될 절차에 따라 정의의 원칙들이 인정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며, 이러한 점에서 그의 정의론은 절차적 정의론 또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론으로 불린다. 이러한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 도덕적, 정치적 이념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이지만,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자유 최대화'의 원칙의 추구 또는 자유방임적 고전적 자유주의의 재현이 아니라 사회의 최약자가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불평등을 합리화할 수 있는 입장, 즉 평등주의적 복지의 추구하고 양립 가능한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롤즈는 로크, 루소, 칸트 등의 사회계약론자들이 '자연상태'로 묘사하였던 '사회계약이 체결되기 이

전의 상황'을 '평등한 원초적 입장'으로 설정하고,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을 '원초적 계약'으로 이해한다(Rawls, 1971, 126-130). 즉 그에 의하면, 사회가 충족시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요구조건 또는 사회제도의 제 1 덕목은 정의(또는 공정성)이다. 사회에는 이해관계의 일치와 상충이 존재하며, 특히 상충국면에서 사람들은 이익의 분배방식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익의 분배를 규제할 일정한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정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필요한 여건, 즉 '정의의 여건'은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여건으로 구분된다. 객관적 여건이란 '적절한 부족'(moderate scarcity)의 상태 즉 천연자원이나 기타 자원이 협동체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풍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협동체제가 붕괴될 만큼 궁핍한 것도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주관적 여건이란 '상호무관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가정이 존재한다. 하나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는 냉정히 따지지만 상대방의 이해관계는 무관심하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이 지식, 사고, 판단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적절한 부족상태 하에서 상호무관심한 자들이 사회적 이익에 대해 상충하는 요구를 제시할 경우 정의의 제 여건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속하게 될 사회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을 택하게 된다. 롤즈는 당사자들이 여러 대안들을 평가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이러한 조건을 갖춘 도덕적 관점을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고 부르고, 이를 규정하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하나는 당사자들의 인지상의 조건으로서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이라는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동기상의 조건으로 '상호무관심적 합리성'이라고 한다. 특히 무지의 베일로 인하여 특정한 사실에 관한 지식은 배제된다. 즉 각자는 자신이 속할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연령, 나이, 천부적 재능이나 체력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우연적 요소들은 도덕적 가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데 작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계획의 구체

적 내용을 모르며, 자신이 어느 세대에 속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단지 당사자들에게 알도록 허용된 유일한 특수 사정은 그들의 사회가 정의의 여건 하에 있다는 점뿐이다. 이러한 무지의 베일은 합의의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정의의 실질적 내용으로부터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의 합리적 당사자들은 어떤 선택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 제도를 결정하게 된다. 원초적 입장에서의 선택은 당사자들이 자신이 선택할 어떤 특정 사회체제 하에서 자신의 개인적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롤즈에 의하면, 이러한 불확정한 상황에서 합리적 인간들이 자신들의 결정 규칙을 선택함에 있어 두 가지 입장이 가능하다. 하나는 최소극대화(maximin) 원리를 내세우는 입장으로, 합리적 인간들은 불확정한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 가운데 각각이 초래할 최악의 결과 중 가장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개인들은 바로 이러한 규칙에 따라 결정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다른 하나의 결정 규칙은 기대-효용극대화의 원칙으로, 이는 불확정한 상황의 합리인은 가능한 대안들 가운데 기대되는 모든 결과에서 평균 효용이 가장 큰 것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롤즈가 거부하는 이 후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에 논거한 것이다.

롤즈는 자신이 규정한 대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사회적 기본가치'(primary goods)(자유, 소득, 권력, 기회 등)의 분배원칙을 정함에 있어서 우선 '평등의 원칙'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즉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무지의 베일로 인해 자신에게 특정한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또한 자기 이해관계적 합리성으로 인해 자신에게 특정한 손해를 묵과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있어서 동등한 몫 이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동등한 몫보다 적은 것에 동의한다는 것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은 평등한 분배를 요구하는 원칙을 정의의 제 1 원칙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롤즈는 그들이 이

러한 단순한 평등의 원칙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만약 사회체제에 어떤 불평등이 있음으로써 그것이 단순한 평등이 주는 경우와 비교하여 모든 사람들의 처지를 보다 개선해 줄 수 있다면, 합리적 당사자들은 그러한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즉, 롤즈에게 있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보다 평등한 분배가 주는 당장의 이익을, 미래에 돌아올 보다 큰 보상을 생각하여 투자할 수 있는 합리인들이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에 합의하게 된다. 이러한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불평등이 사회의 최소수혜자 집단의 장기적인 기대치를 극대화시키거나 적어도 그에 기여할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우선, 합리적 당사자들이 도달하게 되는 정의 원칙의 일반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즉 "모든 사회적 기본가치 -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그리고 자존감의 기반 등 - 는 이러한 제가치의 일부 혹은 전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Rawls, 1971, 303). 즉 롤즈에 의해 정식화된 정의의 원칙에서, 제 1 원칙은 "각인은 모든 사람에 대한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총체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며, 제 2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즉, (a)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고, (b)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 모든 이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에 관한 롤즈의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규범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의 정의론은 사회계약론적 자연상태를 공정한 가상적 조건 속에서 합리적 개인들에 의한 정의 원칙의 선택 상황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에 근거하지만 공리주의와는 달리, 공정한 선택 상황에서 정의 원칙들을 도출함으로써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실현을 위한 규범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론은 주요한 이론적 및 실천적(또는 정책적)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을 내

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

우선 롤즈의 이론에서 핵심적 사항은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장막 뒤에 있는 원초적 입장의 합리적 개인들 간에 선정된다는 점이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은 단지 자신의 이해관계나 목적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가정된다. 롤즈는 정의의 원칙 설정을 위한 전제로서 자연상태에 관한 이러한 개념화가 그의 이론에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관련 당사자들은 완전히 이기적임을 가정하더라도 정의로운 윤리의 규칙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추론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롤즈는 장막 뒤의 당사자들이 장막이 걷히더라도 정의로운 상황에서 그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원칙(평등의 원칙)과 더불어 '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능한 좋게 만들고자 하는 원칙'(차등의 원칙)을 동시에 설정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롤즈의 주장, 즉 공정한 선택 상황이라고 규정한 무지의 장막에서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리적 개인들 간에 정의의 원칙을 설정하게 된다는 그의 가정은 자유주의적 입장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화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예로, 피스크(Fisk, 1975)는 롤즈가 도덕적, 정치적 이론을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문제로 환원시킴에 있어 '합리적 개인의 선택'이라는 모델 그 자체가 이념상 자유주의적 편견이라고 지적한다.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그의 비판에 의하면,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집단의 이해관계로 얽혀있게 마련인데, 롤즈는 이러한 현실적 조건들로부터 인간을 왜곡되게 추상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롤즈의 이론에서 또 다른 핵심 사항은 이러한 두 가지 원칙들에 기초한 절차적 정의론이라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사회의 최하위 부분의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한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음을 단언하는 차등의 원칙은 평등원칙에 대한 조정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만약 부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면, 어떤 사람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손실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러나 롤즈는 어떤 불평등이 일정량의 부를 사회에서 최약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부의 동일 몫보다도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차등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들이 부응할 때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사회의 부의 불평등은 생산성에 대한 자극으로서 요구되며, 부가적 생산성에 의해 창출된 초과된 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이다 (Thero, 1995. 96). 즉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부의 배분에 있어 평등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의 창출에 있어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롤즈는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정의의 원칙들이 준수된다면 그 결과는 필수적으로 정의롭게 된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이 순수하게 ‘절차적 정의’의 형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롤즈가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 특히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차등의 원칙의 도출과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하는 노직(Nozick, 1974)에 의해 비판되기도 했으며, 롤즈의 분배적 평등주의는 최소수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입장을 공평하게 고려하는 평균선호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반대되기도 했다(Hare, 1974; Harsanyi, 1975).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은 대체로 전통적 자유주의 내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지만, 롤즈의 정의론은 현대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분배적 규범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만으로 분배적 정의가 달성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분배정의는 단순히 절차적 정당성만이 아니라 이에 따른 결과의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롤즈는 현실세계에서 왜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는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배의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세 번째 비판은 공동체주의와의 논쟁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롤즈의 정의론이 근거하고 있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는 사실 공동체의 상실을 야기하고 공동체적 선을 무시하는 개인주의적 자아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을 공동체주의자들로부터 받게 되었다. 물론 롤즈도 사

회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롤즈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차등의 원칙과 같은 공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만 타인들의 자발적 협동을 요구할 수 있고, 그들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롤즈의 생각의 배후에는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호혜적인 제도로서의 협동체제의 효율성은 그 성원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지만, 이러한 능력은 협동체제의 테두리 안에서만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이 깔려 있다(Rawls, 1971, 179). 협동체제 속에서 능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득은 모든 성원이 동일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공동의 산물이다. 따라서 결국 롤즈에 의하면 자연적 능력의 배분은 집단의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것을 근거로 과도한 몫을 취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근거 없는 부당한 것이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론에서 협동체제 또는 공동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와 이해관계의 충족을 위해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되며, 따라서 그의 이론은 공동체적 선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점은 이해관계에 관한 개인적 추구에서 나아가 어떤 일관된 이해관계의 선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공리주의적 주장을 반대하는 것과는 관련을 가진다. 대신 롤즈는 사회적 기본가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의 생산과 가용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기여하도록 하는 원칙을 고안하는 순수한 이타주의자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적 기본가치를 가능한 많이 생산하는 구조로 사회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결국 롤즈의 정의론은 개인적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기본가치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사회를 추구하지만, 실제 분배의 결과에 있어 정의를 문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즉 공동체적 입장을 우선하는 호혜적 평등의 가능성을 부정한다³⁾.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일단 롤즈의 정의론이 가지는 함의를 비판적 지지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롤즈의 정의론에서 주된 주제는 사회적 기본가치들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합의된 원칙들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의 정의론

표 1. 정의에 관한 3가지 개념

구 분	엘리트주의적 정의 (자유지상주의적 정의)	공리주의적 정의 (계약론적 정의)	사회적 정의 (롤즈적 정의)
기본 공리	강자가 지배하도록 하자	행복을 최대화하자	고통을 최소화하자
선호되는 집단	강자	다수	빈자
정부	최소 국가	경찰국가	복지국가
전형적 제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힘	국가의 보이는 힘	부의 재분배
선도적 학자	A.스미스, 노직, 하이엑	홉스, 벤담, J.S.밀	루소, 맑스, 롤즈

자료 : Davy, 1997, p.267.

은 기본적으로 분배적 사회정의론이다. 그의 사회 정의론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논란과 비판이 있었지만, '무지의 장막'과 '원초적 입장'이라는 독특한 개념적 틀을 중심으로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동시에 정교하게 고려한 정의 이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다. 롤즈의 정의론에서 '무지의 장막'과 '원초적 입장'이라는 두 개념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확보해주는 데 강한 설득력을 보여준다. 특히 롤즈의 정의론은 "정의의 문제를 더불어 존재하는 대상들 간의 부담과 분배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경쟁, 불평등의 문제로 파악하고,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장막'이라는 가설적 도구를 동원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하겠다(고정식, 2004, 70).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과 관련하여, 하이엑(Hayek, 1979, 3)은 신자유주의적 권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또는 분배적 정의는 단지 "당면 명제, 특정한 요구가 어떤 이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편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장의 보이지 않는 힘을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론은 결국 최소 국가의 개입 하에서 강자에 의한 사회 지배를 기본 공리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또한 롤즈가 극복하고자 하는 공리주의적 정의론은 국가의 직접 개입으로 최대 다수의 행복을 최대화하고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의 이해관계는 배제되거나 무시되게 된다. 이러한 정의론들과 비교하여 롤즈적 분배주의 정의론은 복지국가에 의한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빈자들의 고통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거나 최소화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실 분배적 정의는 재화와 편익의 배분과 관련되며, 특히 초점은 이러한 배분과정에서 상이한 대우가 필요할 경우 이의 적합한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점에 관심을 가진다. 편익의 분배가 공정한가의 여부 판단은 다음 두 가지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재화들의 배분을 위한 절차적 '과정'이 공정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둘째 결과적인 '산물'이 그 과정이 어떠한지 간에 공정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경우이다. 첫째 경우의 문제는 분배가 어떤 원칙들을 택해야 하는가이다. 둘째 경우의 문제는 누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정의론, 즉 절차적 정의와 실제적 정의는 어느 한 측면만으로 분배적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기 어렵다. 롤즈의 이론은 절차적 분배정의에 관한 정교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 정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두 번째 정의의 측면에서 어떠한 분배 결과가 가장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재화와 편익의 정의로운 분배 또는 공정성을 위해 제시된 기준들은 완전 평등, 필요, 공과 또는 기여(예상된 대가) 등이며,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인간의 기본적 필요의 평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주장된다. 즉 분배의 불평등 자체가 반대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대되어야 할 것은 인간 생활의 일상적 조건들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에서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Almond, 1995, 16). 이러한 점에서 롤즈의 정의론은 빈자를 최우선의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3. 환경 자원의 정의로운 배분

1) 롤즈의 정의론에서 자원 분배의 문제

사회정의에 관한 롤즈의 저작이 출판된 이후, 그의 정의론은 매우 정교한 논리와 복잡한 개념들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 가치들의 분배를 위한 절차적 정의 이론을 구축했다. 이러한 점에서, 롤즈의 정의론은 고전적 정의론에 상응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 응용가능성이 검토되어 왔다. 환경 분야에서도 상당한 연구자들이 그의 이론을 환경정의의 정형화에도 적용가능성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를 전개해 왔다⁴⁾.

환경분야에서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검토는 크게 두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환경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것으로, 광의적인 사회정의 이론 내에 환경적 이슈들을 사람(개인이나 집단)들 간 분배적 정의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정의를 자연의 생명체나 여타 구성물들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환경자원의 배분에 관한 환경정의론의 구축을 위하여 롤즈의 정의론을 응용하고자 하는 전자의 논의들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응용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논의, 즉 롤즈의 분배적 사회정의론을 생태계의 구성물들 간 관계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으며, 직접적인 응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롤즈 자신의 입장을 포함하여 회의적인 견해가 다소 우세하다. 즉, “만약 그가 옳다면, 그의 이론은 생태적 정의- 종들 간의 정의-에 관한 이론을 제공하기 위하여 확장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이론을 환경적 정의 - 즉 환경적 가치와 부담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인간들 간의 정의 - 이론을 제공하기 위하여 확장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Bell, 2004, 297). 그러나 양 분야의 응용가능성이 완전히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이 절에서는 롤즈의 정의론을 배경으로 환경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이론이 구축가능한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절에서는 자연구성물들 간 생태적 정의의 이론화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롤즈의 이론에서 우선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분배의 대상물, 즉 사회적 기본가치가 아니라 사회정의에 관한 배경적 조건으로 제기된다. 즉 롤즈에

의하면, 가능한 모든 사회가 다 정의의 원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는 배경적 조건이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자원의 ‘적절한 부족’이라는 객관적 여건, 그리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는 냉정히 따지지만, 상대방의 이해관계에는 비교적 무관심하다는 ‘상호무관심성’에 관한 주관적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Rawls, 1971, 126-130). 롤즈의 <정의론>에서, 자원문제는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배경적 조건으로 논의된 점을 제외하고는 차등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 환경적 재화나 피해의 배분에 관해 아무런 직접적 언급이 없다.

이러한 롤즈의 견해는 그의 후기 저작들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어떤 사회의 부정의는 자원의 부족에 기인하기 보다는 사회적 능력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 자연 자원의 부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많은 사회들은 자원을 결하고 있지는 않다. 반대로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매우 적은 자원을 가지고도 잘 해 나갈 수 있다. --- 아마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통치되며 그 인구가 그 나라의 경제와 자원의 규모에 맞추어 적절하다면 품위 있고 가치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롤즈, 2000, 100).

이러한 롤즈의 입장은 자연으로부터 직접 획득되는 환경적 자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자원들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원에 관한 규정은 이의 분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원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양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분배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자원에 관한 이러한 롤즈의 견해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함의하고 있다. 첫째, 자원을 분배의 대상으로 ‘적절한 부족’ 상태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지만, 자원이 사회적 (협동)체제를 통해 생산되며, 이러한 생산과정에서 분배가 기본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⁵⁾. 둘째 자원의 이용은 흔히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한 사람의 자원 이용은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무관심’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어렵다. 셋째, ‘인구

가 그 나라의 경제와 자원의 규모에 맞추어 적절하다'는 가정은 사실상 부정의의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 즉 인구와 자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로 인해 롤즈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통치'에 관한 사회정의와는 달리 인구와 자원간의 적절한 관계, 즉 환경정의에 관한 논의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롤즈의 정의론을 응용하여 환경정의론을 개념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자원에 관한 롤즈의 이러한 견해에 내재된 문제점들과 더불어 사회적 자원 일반과 환경 자원의 차이를 이해해야한다. 즉 물, 공기, 토지와 같은 환경자원은 상품으로 생산되는 일반 자원과는 달리 지구의 고유한 자원으로 특정한 개인에 의해 소유되기 보다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공동으로 이용되고 재생산되는 것이다. 만약 소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들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생존과 관련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원의 적절한 부족' 및 자원 이용에 대한 '상호무관심'의 가정이 적용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자원은 사람들의 계획 달성을 위하여 분명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점, 즉 사회적 기본가치라는 점에서, 당사자들은 지구 자원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자원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환경정의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Luper-Foy, 1992; 고정식, 2004).

이러한 점에서 다시 롤즈의 정의론에서 제시된 무지의 장막과 원초적 입장, 그리고 2가지 원칙들을 환경자원의 분배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누가 환경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무지의 장막과 원초적 입장의 개념을 적용하면, 모든 사람(현재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하여)들은 무지의 장막 이면에 위치해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당사자들은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개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환경자원의 혜택의 형평적 몫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자원 형평의 원칙은 사회적 수준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도 응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어떤 국가

의 시민들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의 제한적 이용은 사회 여러 문제들과 더불어 환경 피해와 관련된 문제들에 '정당한' 간섭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예로, 환경오염 사건들에서 보상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보상 능력을 결하고 있는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벤즈(Wenz, 1988, 244)가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막대한 손실은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이 기피할 종류의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수혜자(또는 최대피해자)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평등 배분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롤즈의 정의론은 환경정의와 관련하여 자유지상주의나 공리주의보다도 더 적합하다고 주장된다.

2) 환경정의로의 확장에 관한 롤즈의 견해

롤즈는 자신의 사회정의론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론이 확장될 수 있는 주제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롤즈가 그의 이론의 확장과 관련하여 특히 지적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 "하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하여 정의를 확장하는 것이다. ... 다른 하나는 국제적 법과 사람들 간의 정치적 관계에 응용되는 개념들과 원칙들을 위하여 이를 확장하는데 따른 문제이다. ... 확장의 세 번째 문제는 정상적 보건 의료에 관한 원칙을 설정한데 따른 것이고, 끝으로 우리는 정의가 동물이나 다른 자연 질서와의 관계에 확장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Rawls, 1993, 244-45). 이러한 4가지 주제들, 즉 미래세대, 국제관계, 보건의료, 그리고 동물 및 자연질서와 관련된 확장의 문제에서, 롤즈는 앞의 3가지 문제들을 포괄하기 위하여 그의 이론은 성공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제안한 반면, 네 번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그의 이론이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앞선 3가지 확장 문제와 관련하여 롤즈

의 이론을 환경정의의 개념화에 응용가능함을 고찰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확장의 문제, 즉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포괄하기 위한 확장은 세대간 환경정의의 원칙을 포함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대간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와 관련하여 롤즈의 이론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난점들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지구환경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어떠한 견해도 받아들일 수 없음에 동의하기 때문에 무지의 장막 뒤에 있는 당사자들이 순전히 자기-이해관계와는 별도의 상황을 원초적 입장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롤즈가 제안한 예에 의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서 보살펴야 할 어린이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초적 입장에 있는 각 개인은 다음 세대(최소한 연이은 한 세대 동안)에서 필요한 사람을 보살피기 위하여 저축하기를 원한다고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맨닝(Manning, 1981, 161)의 주장에 의하면, 롤즈의 이러한 주장은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미래세대들은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들이 원칙들에 합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현재 세대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상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활동들이 미래 세대들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동일한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미래세대가 무지의 장막 이면의 원초적 입장에 현 세대와 동등한 주체로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 점은 벤즈(Wenz, 1988, 249)가 제안한 것처럼, ‘무지의 장막’을 좀더 두껍게 함으로써, 즉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가 실제 세계에서 어느 시점에 존재하게 될지 알 수 없음을 추가로 가정할 경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롤즈가 주장한 바와 같이 현세대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연이은 다음 세대가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예로, 수십 세대에 걸쳐 무해할 정도로 잘 저장된 핵폐기물일지라도 그 이후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래의 한·두 세대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기 이해관계적 개인들로는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래세대와의 정의로운 자원 배분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세대간 환경정의를 위하여 차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미래세대의 자원 고갈 및 환경악화와 관련된 문제를 보상하기 위하여, 롤즈는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just savings principle)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현 사회의 최저수준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저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축의 원칙에 관한 롤즈의 설명은 현세대가 자녀를 두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저축의 원칙은 차등원칙에 대한 어떤 제약이 된다(Bell, 2004). 사실, 롤즈는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을 옹호하는 것처럼,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이 의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롤즈에 따르면, “각 세대는 문화와 문명의 이득을 보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립된 정의로운 제도들을 온전히 유지해야 하고, 또한 실질적 자본 축적의 적정 양을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해 두어야 한다”(Rawls, 1971, 286). 이렇게 유보된 자본 축적량은 미래세대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롤즈는 이렇게 저축해 두어야 할 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를 정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요구되는 율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바는, 첫째 이는 차등의 원칙에 의해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최저수혜의 첫 세대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며, 그리고 차등의 원칙은 “저축이 전혀 없는 상황을 함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둘째 각 세대는 그 앞선 세대로부터 기대되었던 것과 최소한 같은 크기의 자본 축적을 이월해야 함으로 전제로 하며, 세제 일단 정의로운 제도가 설립되었을 경우 요구되는 축적은 영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루퍼-포이(Luper-Foy, 1992)에 의하면, 아 가운데 첫째는 잘못된 가정 - 즉 세대간 정의에 관심을 가지는 첫 번째 세대는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자동적으로 어떤 저축계획에서 최저 수혜 세대가 된다는 잘못된 가정 - 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된다. 반면, 만약 앞선 세대들이 적게 보전하거나 아무것도 보전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러

한 사실을 고려하면, 차등원리에 따라 우리는 보다 앞선 세대에 불평등한 희생을 부여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전망을 향상시켜야 함을 요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확장 문제는 정의론을 국제적 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롤즈는, 만약 개별 국가들이 '내적으로' 정의롭다면, 세계 전체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정의의 원칙들은 단순히 국가들의 평등 원칙과 같은 관례들이나 국가적 자율과 자기방어의 원칙과 같은 자명한 추론에 한정된다. 이러한 관례적 원칙들로는, 국가들 간 자원의 근본적인 재분배를 요구하는 어떠한 함의나 암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정치가들은 국제적 정의에 관한 롤즈의 논의를 비판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롤즈의 이론을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 정의를 위해서도 응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만약 롤즈가 그의 강한 원칙들이 국내에서 응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였다면, 유사한 추론을 통해 세계에 걸쳐 이러한 원칙들은 정당하게 응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롤즈는 자신의 정의론이 국내적 상황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비판적 지지자들은 그의 정의론이 국제적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Langhelle, 2000 참조).

이러한 점에서 이 비판들은 롤즈를 반대하기 보다는 롤즈의 원칙들을 국제적 정의에 응용하고자 한다. 예로, 롤즈가 제시한 원칙들은 국제적 질서를 위해 특히 강력한 함의를 가진다. 비록 롤즈는 국제적 차원에서 자원 몫의 배분에 직접 초점을 두지는 않지만, 그는 자원 형평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자원들을 다루는 세계의 주요 국가나 기관들 모두는 최저 빈곤자에게 가용한 기본가치를 최대화하도록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 원칙들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계 자연자원의 평등한 몫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일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자연자원을 배분받겠다고 할지라도, 세계 전체의 기본가치의 총 공급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세계자원들의 혜택의 형평적인 몫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확장 문제는 롤즈의 정의론이 보건의료 영역에 응용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롤즈는 그의 최근 저작(2001)에서도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정의(justice in health care)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롤즈는 그의 <정의론>에서 시민들이 결코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보건의료 영역으로의 확장을 위하여 시민들은 때로 질병을 앓거나 심각한 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을 허용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들과 협력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롤즈는 보건을 사회적 기본 가치를 가운데 하나로 고려하면서, 이에 대한 두 가지 원칙들이 적용가능하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롤즈의 견해에서, 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을 보호하고 진료를 제공하는 정책도 포함하며, 이러한 공적 보건정책의 일부로서 환경정책이 고찰되거나 또는 이에 유추하여 환경정의가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환경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주요 관심은 환경적 공해와 퇴락이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를 포괄하기 위한 롤즈 이론의 확장이 어떻게 환경정의의 개념화에 반영될 수 있는가를 살펴 볼 수도 있다(Hartley, 1995).

이와 같이 롤즈 자신이 제시한 보건의료 영역에의 확장을 환경정의의 개념화로 재확장함에 있어 문제는, 보건의료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본가치이지만,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 가치를 능가한다는 점이다. 롤즈에 의하면, 기본 가치란 모든 합리적 개인들이 원하는 것들이며, 사회적 재화로서 배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 문제에 비해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는 자연적 개연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따라서 사회적이면서도 동시에 자연적인 기본적 가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맨닝(Manning, 1981, 160)은 이 문제를 자존심(self-respect)과 관련시켜 해결하고자 한다. 롤즈의 정의론에서 자존심은 기본적 가치를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며, "만약 사회가 분배적 정의의 체계 내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회로부터 존중의 결핍으로 자기존중감이 손상될 것"이며 따라서 "보건 그리고 이로 인해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들은 분배적 정의의 원칙들 하에서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될 수 있다. 예로, 환경

오염원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감정이 해당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의 뻔뻔스러운 입장에 의한 무배려로 흔히 무시되고 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염원과 직접 접하는 곳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오염자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자존심에 대한 배려의 결여로 자기존중감이 상실되어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기에는 다소 불확실하거나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롤즈 스스로가 확장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의료보전 영역과 관련하여 환경문제의 피해에 따른 정의로운 부담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4. 롤즈 이론의 확장과 생태정의

1) 롤즈 이론의 생태적 정의로의 확장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기본적으로 인간들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의 이론을 동식물이나 자연의 그외 구성물들까지 확장하고자 할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롤즈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그의 정의론이 매우 제한된 범위나 조건 하에서 자연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는 '정당성으로서의 정의'가 합리적으로 인간 생명의 유지를 위한 도구적 기반으로 자연 질서의 번영을 전제로 동식물 종의 보존을 위해, 또는 공적 여기활동을 위한 공간환경의 보존 필요를 포괄하기 위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즉 공적 이성(public reason)은 인간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전제로 비인간 자연세계의 보전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롤즈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연적 종교의 태도' - 즉 보다 넓은 자연 속에서 인간의 위치 그리고 이에 대한 의무에 관한 생태중심적 사고 - 라고 지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공적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주장한다(Rawls, 1993, 245-6). 왜냐하면 공적 이성은 인간 사회의 한계를 넘어서 자연의 본연적 가치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사회계약적 정의론으로 롤즈의 이론은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계약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즉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지에 기초하여 그들이 생각하

는 바의 합리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상호 합의할 때 계약은 비로소 성립한다. 그러나 생태정의의 경우, 정의의 원칙을 정하기 위해 무지의 장막 이면에 있는 당사자는 이론적 가정상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대표)가 되겠지만,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포유류와 같은 고등동물의 경우도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당사자'라는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의 경우, 합의된 정의의 원칙을 지키거나 실천할 선택의 여지가 처음부터 없는 존재들이다. 물론 인간 종과 다른 종 간의 경계가 모호한 주변적 사례들(유아나 치매에 걸린 노인 또는 영장류에 속하는 다른 동물들)도 있지만, 생명체 진화의 현 단계에서 인간은 여타 종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그런 차이는 결국 '이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결국 생태정의론의 구성에 있어, 엄격한 의미로 롤즈의 계약론적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롤즈의 정의론을 직접적으로 생태정의의 개념화에 응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롤즈적 방식을 다소 완화시켜 적용하는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예로, 사회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롤즈의 방법을 생태정의의 문제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그의 계약론적 접근방식에서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장막' 등의 개념적 장치가 목표로 삼는 가치만을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생태정의의 원칙을 수립하는 문제에 있어 생태계의 모든 구성물, 특히 동식물들 간에 최대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정식(2004)은 생태정의를 위한 3가지 원칙, 즉 모든 종은 자연적 진화와 번이에 의하지 않는 한 변종되거나 멸종당하지 않아야 하며(제 1 원칙), 모든 종은 각 종 본래의 본능체계가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제 2 원칙), 그리고 모든 종의 먹이사슬 체계는 자연적 진화와 번이에 의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한다(제 3 원칙)는 점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생태정의를 위한 당위적 원칙들로, 직관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롤즈의 정의론에 바탕을 둔 어떤 논리적 추론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롤즈가 제안한 정의론의 전개과정에 따라 다시 한번 생태정의의 개념화가 가능한가의 여

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태정의의 개념화를 위하여 롤즈의 이론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원초적 입장에 동물이나 식물 나아가 자연의 여타 구성물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만약 우리가 원초적 입장에의 참여자들을 열어둔다면, 주변적 상황에 있는 인간(예로, 정신이상자, 정신박약아, 식물인간 등)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 나아가 산, 물, 강, 호수, 흙 등과 같은 자연의 구성물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기서 가정은 많은 정상적 동물들의 경우 사실 인간들보다도 더 합리적일 수 있으며, 동물들 역시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에 대한 아픔을 느끼는 감성적 존재라는 점이다. 달리 말해, 싱어(Singer, 1988, 223)가 주장한 바와 같이, 원초적 입장에서 동물을 배제하는 것은 처음부터 인간을 선호하는 한편 동물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감성적 동물들의 경우는 원초적 입장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벤즈(Wenz, 1988, 247-250)는 미래세대에 있는 사람이나 비인간적 동물을 포함시키기 위해 무지의 장막을 두껍게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무지의 장막을 두껍게 할 경우, 비인간적 동물이나 심지어 자연의 구성물들까지도 원초적 입장에 참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비인간적 동물들이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리적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실제 고민은 인간을 제외한 자연의 부분들(예로 개별 동물, 동물의 종, 식물, 식물의 종, 하천, 산, 호수, 대양 등)을 포괄하기 위해 장막을 두껍게 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즉 우리 인간은 이러한 사물들과 동일한 위치에 자신을 놓을 수 없다는 점이다. 예로, 내가 송아지라면 무엇을 느낄 것인가, 내가 산이나 호수라면 무엇을 느낄 것인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식물의 종(집합체)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자연의 구성물들은 불평등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상호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떤 합리적 원칙에 합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벤즈는 롤즈의 이론에서 이러한 간과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정의

를 위한 적합한 기반으로서 완전한 이론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Wenz, 1988, 250).

일단 자연의 동식물들이 원초적 입장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롤즈가 제시한 정의의 조건과 원칙들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회를 규제하게 될 정의의 원칙을 선택함에 있어 이를 위한 여러 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원초적 입장은 한편으로 당사자들의 인지상의 조건으로 무지의 장막에 의해 규정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기상의 조건으로 상호무관심적 합리성에 의해 규정된다. 우선 무지의 장막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들은 특정한 사실에 대한 지식은 배제되지만,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 지식은 알고 있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조건을 생태정의를 위한 원칙 선택에 응용해 볼 수 있다. 즉 원초적 입장 속에 있는 당사자들은 자연의 '생명체'라고 지칭되는 모든 종의 대표들로 가정되며, 여기서 그들에게 허용되는 지식과 배제되는 지식이 구분된다. 배제되는 지식으로서 당사자들은 자기가 어떤 종(인간이 될지, 사자나 기린이 될지, 또는 이끼나 아메바가 될지 알지 못함)이 될 것인지, 그리고 같은 종에서도 어떤 형질(우량 또는 열등한 형질)이 될 것인지, 그리고 생존환경이 어떠한 것(생존에 우호적 또는 열악한 환경)인가를 전혀 추측해 볼 수 없는 것으로 가정된다. 허용되는 지식으로, 모든 종의 욕구나 본능, 감각적 반응 등은 파악될 수 있고, 상당한 공통된 특징(고통이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고, 좋은 먹이감의 확보와 좋은 짝과의 짝짓기는 모든 종이 바란다는 점 등)을 지님을 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인지적 조건을 가진 원초적 입장에서, 롤즈의 정의론에서 차등의 원칙(즉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는 범위 안에서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생태정의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는가? 예로, 자신이 어떤 종이나 개체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즉 생존이나 적응에 가장 열악한 종이나 개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가장 불리한 적응 또는 생존 조건을 지닌 종이나 개체들을 위한 어떤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이들의 보존은 생태계 전체의 유지에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힘이 세거나 동작이 빠른 동물들(예로, 사자나 독수리)은 유리한 종으로 보이고 하루살이나 약한 초식동물들은 불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되는 한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종이란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각 종의 대표로서는 먹이사슬의 한 고리를 차지하여 그 사슬의 상위의 존재에게는 먹히는 존재로서의 위상을, 하위의 종에게는 먹는 존재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차피 자기 종의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되어야 한다면 종 전체의 지속적 번영을 위하여 오히려 열등한 개체의 희생이 선호될 수도 있다(고정식, 2004, 86). 즉 생태계에서 가치에 대한 판단은 인간중심적 사고를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포괄적 기준이나 원칙을 설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롤즈의 정의론을 동식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인간과 더불어 이들도 기본적 가치에 관해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싱어(Singer, 1998, 225)에 의하면, 동물과 인간은 어떤 기본적 가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점을 가정할 수 있다. 예로 식량이나 물, 공기 등과 같은 기본적 가치들은 일정 종류의 동물들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싱어에 의하면 이러한 이해관계의 공유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리적 인간이 계약형성 과정에서 비인간적(따라서 비합리적) 구성원들의 혜택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점은 원초적 입장에 이들이 함께 참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은 롤즈의 이론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은 다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가정과 조응하지 않는다⁶⁾. 즉 롤즈의 이론, 특히 생태정의의 주관적 여건으로서 상호무관심성에 따르면, 지구상의 각 종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의 생존 및 자기 종의 영구적 증식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종의 생사나 번영의 문제에는 무관심하며, 언제나 그러한 자기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활동한다는 의미에서 자기중심적이다. 따라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종을 위해 수혜로운 원

칙을 선정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이 점과 관련하여, Pritchard and Robison(1981)은 정의의 원칙들이 다른 도덕적 고려들과는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롤즈의 가정을 의문시한다. 롤즈에 의하면 “정의는 정의감을 위한 능력 덕분이며” 따라서 정의이론은 “이러한 능력을 결하고 있는 창조물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의무들에 대해 아무런 것도 말하지 않는다”(Rawls, 1971, 512). 여기서 롤즈는 우리가 다른 창조물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책임감은 정의라는 용어로 적절하게 서술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롤즈의 주장은 인간의 정의가 동물이나 환경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인간과 동물의 이해관계 간 갈등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인간 참여자들이 완전히 자기-이해관계적이라고 가정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세 사람과 개 한마리가 외딴 섬에 고립되어 한달 동안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식량은 세 사람만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정도이고, 이에 따라 세 사람이 식량을 동일하게 나누어 가졌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은 세명의 사람들에게는 정의롭겠지만, 개에게는 아무런 책임감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즉 개는 계약 형성에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롤즈적 정의론은 식량에 대한 개의 주장을 윤리적으로 지지하는 아무런 것도 제시하지 못한다.

이상의 논의는 사실 롤즈 자신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롤즈는 그의 정의론이 완전한 정의이론이 아니라, 단지 정의에 관한 한 이론이라고 제시한다. 여기서 정의는 기본적으로 정의감을 위한 능력 또는 공적 이성을 가진 존재, 즉 인간에게만 관련된다. 물론, 롤즈는, “즐거움과 고통의 감정 능력, 그리고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형태의 능력은 그들의 경우에 동정과 인간성의 의무를 부여한다”고 인정한다(Rawls, 1971, 512). 그러나 롤즈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의의 ‘최초 상황’은 이러한 의무들이나 책임감을 설명할 수 없다. 단지 자연적 질서에서 우리의 장소를 결정하는 형이상학적 이론(예로 생태중심적 환경론 등)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연의 모든 생물종이 무지의 장막의 이면에서 원초적 입장을

가지고 숙고하면서 환경정의의 원칙을 정한다고 가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다른 종들이 환경정의의 원칙 제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이들 가운데 인간만이 그런 원칙을 법제화하거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라고 볼 수 있다. 생태정의의 이러한 특수성은 결국 정의 원칙의 실현이 온전히 인간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2) 동물평등과 동물권리

동식물과 자연의 그 외 구성물들에 대한 롤즈의 사고는 사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서구 철학이나 윤리학의 합리주의적 전통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칸트 윤리학의 기본 주장들 가운데 하나는 이성을 소유한 인격적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존중이나 정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칸트의 윤리학 내에서는 동물에게 어떤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동물을 도덕적으로 배려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동물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수단적 가치만 가지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필요나 욕구, 목적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칸트는 <도덕 철학 강의>에서 “어떤 동물도 자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모든 동물들은 단지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며, 스스로를 위하여 존재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인간은 목적이므로 더 이상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 --- 이로부터 우리가 동물에 대하여 어떤 직접적인 의무도 지니지 않는다는 점이 도출된다.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성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Kant, 1978; 김성호, 2002, 84. 재인용). 이런 측면에서 칸트의 견해는 현대의 동물보호론자 또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전형적인 종중심주의(speciesism)에 빠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칸트는 인간이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물을 임의로 괴롭히거나 학대함으로써 동물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간접적인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즉 “생명을 지니고 있지만 이성적

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피조물과 관련해 볼 때, 동물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왜냐하면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하는 감정을 무디게 하고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련을 맺을 경우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자연적인 본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점차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Kant, 1978; 김성호, 2002, 84.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우리가 동물을 대우하는 방식이 얼마든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하는 일이 비인간적이고 사악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칸트의 견해는 비록 일관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두가지 상반된 입장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을 윤리적 또는 도덕적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논쟁들이 계속되어 왔다.

우선 서구적 의식에서 인간과 동물이 도덕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견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정식, 2004, 71). 첫 번째 가장 일반적 견해로서, 도덕적 위상은 자율성, 합리성, 자기의식성 등에 근거한다는 주장이다. 즉 어떤 존재가 충분하고 평등한 도덕적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율적, 합리적, 자기의식적이어야만 하며, 인간만이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위상을 가진다는 관점이다. 반면 다른 동물들은 감성적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율성, 합리성, 자기의식성 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이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를 경우,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감성적(sentient)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동물과 인간의 이해관계가 갈등을 일으킬 경우 인간의 자율성, 합리성, 자기의식성 등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동물 실험이나 식량으로서의 동물사육 등은 정당화된다.

두 번째는 인간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위상을 가진다는 관점이다. 어떤 존재가 권리를 가지면,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존재들은 그 권

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즉 권리를 가진 자는 자기 이익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 없고, 도덕적 위상도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간만이 타자를 위하여 이타적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위상을 가진다는 관점이다. 도덕적 행위란 타자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인간만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 동물은 타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없고 오히려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 타자를 희생시킨다는 점이 강조된다. 희생의 혜택을 입은 존재는 타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존재에 비해 그 가치가 떨어지며, 따라서 인간과 여타 생명체는 평등할 수 없으며, 인간에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네 번째는 인간만이 도덕 공동체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어떤 존재가 충분하고 평등한 도덕적 위상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 요소는 그 존재가 도덕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인간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상호 교류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가족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인간의 삶과 가치를 구성하므로, 당연히 동물보다 인간에게 더욱 큰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인간과 동물간의 차이에 대한 지적들은 그러나 인간만이 도덕적이며, 동물들은 비도덕적인 존재로 다루어져도 좋다는 어떤 증명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입장에서 인간과 동물 간의 차이를 인지할 뿐이고,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들이 과연 비도덕적인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과 동물 간 도덕적 위상을 논의하는 것은 인간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즉 만일 동물이 위와 같은 이유들로 해서 직접적인 도덕적 위상을 갖지 않는다면, 유아나 치매 노인, 심각한 정신박약자, 그외 비슷한 주변적 사례에 속하는 사람들도 직접적인 도덕적 위상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러한 사람들도 당연히 직접적인 도덕적 위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므로, 동물에게 직접적인 도덕적 위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은 어떤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물도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위상을 갖는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의 저자인 싱어(Singer, 1990)는 동물의 이해관계를 인간의 이해관계보다 낮게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 비판하면서, 만일 우리가 동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불평등하게 고려한다면 서로 다른 인간들의 이해관계 대해서도 역시 불평등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도덕적 고려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존재들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동등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에 대한 동등한 고려의 원칙’(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을 제시한다(Singer, 1990, 21). 싱어의 논증에 따르면, 인간에게만 도덕적 위상을 부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첫째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것은 아니라든가, 아니면 둘째 인간만이 평등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첫째 결론은 우리의 직관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결국 둘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동물의 도덕적 평등론에 관한 이러한 싱어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Wenz, 1988, 162). 즉 비인간 동물도 감정적 존재로서 인간만큼이나 즐거움과 고통을 경험하며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기 때문에, 만일 인간의 행복이 가치로운 목표라면 비인간 동물들의 행복도 비슷하게 가치로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비인간 동물들은 경험이나 감정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부 동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각하고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따라서 공리주의적 동물 평등론자들은 항상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의 행복 극대화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로 가축들은 인간의 소비를 위해 사육됨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갇혀 지내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식사법은 채식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레이건(Regan) 등에 의하면, 문제의 핵심은 이해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인데, 공리주

의자들은 초점을 이해관계 그 자체에 맞추므로써 매우 끔찍한 행동조차 허용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예로, 만일 인간에 관한 실험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공리주의적 견지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한 이러한 주장은 직관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재적 가치를 지닌 어떤 존재도 단지 수단으로서만 이용될 수 없다는 점”으로 보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건(Regan, 1983)은 <동물권을 위한 사례> (*The Case for Animal Rights*)에서 싱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동물도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고정식, 2004. 참조). 그는 공리주의에 근거한 싱어의 도덕적 동물 평등론과는 달리, ‘내재적 가치’ 개념에 의존하여 동물도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우선 어떤 존재가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 입장에 따를 경우 주변적 사례의 사람들(유아나 치매노인, 정신박약자 등)은 자신의 권리를 표현할 수 없고 따라서 권리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레이건에 의하면, 정상적 성인과 주변적 사례들 양자에게 공통된 유일한 성질은 ‘한 생명의 주체’(subject-of-a-life)라는 점이다. 그의 논증에 의하면, ‘한 생명의 주체’인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인데,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우리가 존중해야 할 존재이며,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런 존재를 단순히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 대우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권리를 가지며, 각 개체들의 이러한 권리는 총체적 선의 증진이라는 공리주의적 목표보다 우선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레이건에 의하면, 생태정의는 한 생명의 주체로서 모든 동물들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다. 물론 레이건이 주장하는 동물 권리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만약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는 인간의 삶이 동물의 삶에 우선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인들은 동물에게는 없는 충만한 존재로 살기 위한 많은 가능성

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레이건은 한 사람의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동물을 희생시키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동물의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죽음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Wenz, 1988, ch.7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레이건에 의하면, 희생당하는 권리의 크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의 상태를 보다 낮게 만들 것이라는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개별자들은 그 자체의 목적성, 즉 ‘한 생명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레이건의 동물권리론은 칸트의 의무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레이건의 주장에는 여전히 권리들 간 갈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예로, 동물들 간의 권리가 서로 갈등할 때(예로, 배고픈 늑대가 양을 잡아먹을 때), 인간의 동물에 대한 권리 인정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때(예로, 배고픈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 독수리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늘임으로써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면), 권리들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3) 자연의 내재적 가치와 생태정의

환경정의에 관한 철학적 전통을 나름대로 정리했던 벤즈(Wenz, 1988, 130)에 의하면, “환경정의는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무시된다면 완성될 수 없다.” 모든 도덕적 고려의 주체가 인간이라면, 비인간 동물에 대한 인간의 대우에는 어떤 도덕적 제약도 불필요하게 된다. 예로, 열대림의 파괴가 위기종의 지속적인 존속에 위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종의 지속적인 존속이 인간 삶의 목적에 어떤 기여를 할 때만 그 파괴를 막을 이유가 된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논의한 칸트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칸트의 견해는 단순히 동물에 대한 위협이 도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동물의 고통과 관계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인간중심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또 다른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즉 칸트는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었으며, 어떤 것도 도덕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될 수 없었다

고 추론한다. 그러나 왜 우리는 모든 가치가 도덕적 가치라고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로, 사슴은 자유와 이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주체가 아니며 따라서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슴이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슴은 그 존재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연구자들은 인간중심적이지 아닌 자유주의적 환경윤리 또는 환경(생태) 정의론의 가능성에 관심을 가져 왔다. 즉, 자유주의는 비인간적 환경을 위한 직접적이고 비도구적인 관심을 포용할 수 있는가? 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에서 협소한 인류중심주의를 가정할 경우 이러한 관심은 근거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는 “인간 개인들에게 있어 심상의 상태 또는 생활의 감정들을 제외하고는 궁극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규범적 개인주의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계약론적 자유주의 이론들도 이러한 점에 예외는 아니다. 정치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정의 이론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롤즈도 자연의 비인간적 구성물들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형이상학으로 넘겨 버린다(Rawls, 1971, 512). 즉 자유주의에서는 외적 자연세계의 어떠한 본연적 가치도 정의에 관한 원칙들에 함의하고자 하는 자율적 개인들 간 관계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롤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자유주의와 생태주의가 병존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로, Baxter(1999)는 생태적 정의를 ‘인간과 그 외 자연세계의 구성요소들 간 정의’로 규정하고, 이를 인간들 사이에 환경적 수혜와 부담의 배분에 관한 ‘환경적 정의’와는 구분한다. 환경정의에 관한 주장자들은 인간에 대한 환경의 도구적 가치가 인간들 간의 사회적 정의에 관한 이론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태적 정의는 정의의 개념을 사람들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자연에 대한 정의를 논할 수 있도록 확장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비인간 자연세계를 순전히 인간적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강한 인류중심주의’와 연계된다. 즉 환경론과 자유주의는 병존가능하지만, 생태주의와 자유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Dobson, 2000, p.51).

따라서 대부분의 설명에서 진정한 생태윤리는 자유주의가 제시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생태정의는 반자유주의적이라기 보다는 탈자유주의적 입장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연구자들은 자유주의와 생태주의간 병존가능성을 인정하며, 특히 롤즈적 정치 자유주의는 이러한 가능성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주장한다. 예로, 와이센버그(Wissenburg, 1998)는 진정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급진적인 환경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 자유주의’를 옹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자신이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기반에 자유주의는 동물이나 식물의 종이 아니라 개별 인간의 생존에 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달리 말해, 그에게 있어 가치의 근본적 장소는 동식물이나 그 종 또는 생태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점에서, 그의 설명은 여전히 많은 생태주의자들이 불만족스러워 하는 인류중심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Bell(2003, 2004)도 생태주의와 자유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특히 자유주의를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로 한정할 경우 이들 간에는 병존가능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는 롤즈의 차등 원칙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환경정의를 재규정하고자 했으나, 비인간을 가치의 근본적 장소로 간주하는 논리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다른 한편, 롤즈적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논리에 유추하여 내재적 가치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예로, 헤일우드(Hailwood, 1999, 2003)는 ‘타자성’(otherness)의 개념 및 자연적 질서와 정치적 질서 간의 병존 등에 기초하여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견해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는 내재적 가치를 인정함에 있어, 우선 가치의 근원으로서 ‘자연성’(naturalness)이 강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연성의 가치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소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로 설명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연성의 회복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소외를 치유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Goodin, 1992, 381). 자연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인간과의 관련적 관계 속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칸트의 의무론과 유사한 문제점을 가진다. 즉 자연성의 가치가 인간

소외의 극복을 통해 건강한 인간 정신을 만드는 역할이라는 점으로 이해되는 한, 이러한 가치는 도구적이고 인간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연의 내재적 가치는 자연에 대한 어떤 태도가 인간의 도덕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의 내재적 가치는 자연이 '우리가 아님'(not-us-ness), 즉 '타자성'(otherness)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즉 자연의 타자성이란 자연이 우리와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 실체, 과정, 전체, 그리고 구조를 구성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Lee(1994)의 주장에 따르면, 외적 자연은 자연의 타자성 의미를 구성하는 세 가지 논제에 대해 답함으로써 그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논제란 자연이 인간 목적과 무관하게 그 자체를 위한 존재라는 '비목적론 논제'(no teleology thesis), 인간과 독립적으로 존재와 기능을 위한 기원과 능력을 가진다는 '자율성 논제'(autonomy thesis), 그리고 인간은 인과적으로 자연에 의존하지만 자연은 인간과는 인과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라는 '비대칭성 논제'(asymmetry thesis) 등이다. 이러한 세 가지 논제는 상당히 급진적인 생태중심적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주의적 주장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논제를 자유주의의 범주 내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자연의 내재적 가치와 관련된 이러한 논제들을 논증하기 위하여 헤일우드는 공정성으로서 정의를 체현한 중립국과 타자성으로서 자연 간을 비교한다. 즉 공정성으로서 정의를 체현한 중립국은 자신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주변국들과의 합의를 통해 구축된 목적으로서 그 자체적으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타자로서의 자연은 물질적 근원으로서 도구적 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보존하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중립적 배경으로서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 자체가, 자연은 물질적 근원으로서 도구적으로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자연의 타자성, 즉 그 독립적 존재와 속성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주장을 정당화시

켜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물론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가의 여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지되어야 할 문제이다. 만약 인간의 인지 이전에 또는 이와 무관하게 자연의 내재적 가치가 존재한다면, 이의 존재 여부는 인간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의 내재적 가치가 존재함을 선험적으로 선언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도덕적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하면 될 것이다. 사실 직관, 신비주의, 명상, 종교적 현시, 형이상학, 또는 개인적인 성찰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태도(예로 채식주의, 금욕주의 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자연에 내재된 가치를 인간화된 용어들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위대한 존재의 사슬'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들을 발견하고자 하거나 또는 '인간은 그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자연이다'라는 경구에 함의된 바와 같이 지혜로운 주체가 자연에 내재된 가치들을 인간화된 용어들로 번역함에 있어 최소한 수행할 수 있는 창조적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Harvey, 1996, 157-8 참조).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이와 같은 직관이나 신비주의, 형이상학에 기초하여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의 내재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만약 가치들이 자연에 내재해 있다면, 과학은 그 객관적 절차들을 통해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찾아 낼 수 있는 합리적으로 중립적인 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하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의 관찰과 근본적인 도덕적 원리와 가치들의 탐구 간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오랜 역사가 시작되었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과학의 역사에서 객관적 방식을 통해 자연의 내재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서구 과학의 기원, 특히 데카르트 이후 서구 근대 과학(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그 외 자연과의 존재론적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정의의 개념화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간의 이원론을 전제로 한 서구 과학의 전통을 극복

할 것을 요구한다. 심층생태학은 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며, 또한 자유주의와의 관계가 일정하게 구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예로, diZerega, 1996). 그러나 생물평등과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심층생태학은 환경-생태적 정의의 개념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신비주의적 담론을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최병두, 2001b). 다른 한편 탈구조주의(또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생태학의 경우 스피노자의 철학적 맥락 속에서 존재의 일의성을 강조하는 들뢰즈의 동물행동학적 유형화는 인간과 자연간의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최병두, 2001a). 즉 이에 의하면, 인간과 다른 동물간을 구분하는 서구의 자연과학적 유형화가 아니라 이들의 행동속 속성에 따른 유형화(예로 일하는 인간과 소, 개미는 동일한 유형으로 구분됨)가 정형화될 경우, 이는 형이상학이나 종교, 신비주의 등에 빠지지 아니하고 생태정의를 개념화할 수 있는 하나의 (또는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것처럼 보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탈구조주의적 입장이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이 논문은 현대 사회를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사회정의를 개념화하고자 하는 롤즈의 이론이 자원문제, 환경문제, 나아가 생태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환경적, 생태적 정의의 개념화를 위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했다. 롤즈는 무지의 장막, 원초적 입장, 차등의 원칙 등 복잡한 개념들과 정교한 추론들을 통해 절차적이고 분배적인 측면에서 사회정의에 관한 이론화를 시도했으며, 그의 이론은 이제 하나의 고전적 정의론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분배적 사회정의를 매우 정교하게 체계화했으며 현실적으로도 많은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자유주의 내부(특히 자유지상주의)에서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밖에 있는 학자들로부터 그 문제점들이 지

적되고 있다.

환경문제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그의 이론은 사회적 정의가 성립하는 객관적 여건으로 '자원의 적절한 부족'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즉 자원의 상태는 정의의 객관적 여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 분배되어야 할 정의의 실제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원의 정의로운 배분에 있어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수혜자의 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불평등이 용인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롤즈는 이러한 불평등이 사회적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선택할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고, 사실 그의 이론은 절차적 정의론으로 분배의 결과에 대한 실제적 정의에 대한 보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다른 한편, 롤즈의 정의이론을 동물이나 자연의 여타 구성원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으며, 롤즈 자신도 그의 이론이 확장될 수 있는 주요 영역들에 관해 직접 고찰했지만, 대체로 인간들 간 자연자원의 배분을 위한 환경정의의 개념화에는 응용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비인간 자연의 구성원들 간 관계를 전제로 한 생태정의로 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롤즈의 정의론뿐만 아니라 다른 자유주의적, 또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생태정의를 추구하는 노력들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도나 노력들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간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하는 서구 과학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롤즈의 정의이론이 생태정의를 포섭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우선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지하기 위하여 인간과 자연간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나아가 이를 자신의 이론체계 내에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註

- 1) 그러나 국내에서 지리학의 영역 밖에서 롤즈의 정의를 환경문제에 응용하고자 하는 논의로서, 박전규

- (1995), 이정전(1999), 고정식(2004), 등 참조, 그 외에도 한면희(2000) 및 전재경(2000) 등 참조.
- 2) 황경식(1984), 김비환(1996) 등 참조. 또한 최근 롤즈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서 Salvatore(2004) 등 참조.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는 정치적 정의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호혜성'이라고 주장한다. 즉 롤즈는 "합리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협조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호혜성이 그 세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서로가 이로 인하여 편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awls, 1993, 50).
 - 4) 예로, Manning(1981), Pritchard and Robinson(1981), Elliot(1984), Singer(1988), Thero(1995), Bell(2004) 등 참조. 특히 Thero(1995)는 롤즈 정의론을 환경윤리에 응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7가지 사항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Bell(2004)은 4가지 측면에서 롤즈 정의론의 환경부문의 응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 5) 롤즈의 논리에 따르면, 만약 자원에 관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무지의 장막 이면에 있는 당사자들은 이 조건이 충족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만약 그들의 계획을 위해 이상적으로 요구되는 자원이 부족하다면 이를 조정하여, 그들에게 제공된 자원들이 너무 적지 않도록 할 수 있음을 안다"는 점이 주장될 수 있다(Luper-Foy, 199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 6) 반면 지구상의 각 종들은 자기 종의 생존 및 증식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종의 생사나 번영의 문제에는 무관심하며 언제나 그러한 자기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활동한다는 점에서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은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있어서 상호 무관심성이라는 전제와 거의 그대로 조응한다.(고정식, 2004)

文 獻

고정식, 2004, 롤즈의 정의론을 원용한 환경정의론, 동서철학연구, 32, 69-90.

김비환, 1996,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30(2), 5-23.

김성호, 2002,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칸트의 견해, 환경철학, 1, 77-98.

박전규, 1995, 롤즈의 사회선 이론과 환경윤리학, 범한철학, 11, 19-38.

이정전, 1999, 공리주의와 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한 환경정의, 정의의 눈으로 환경을 본다: 사회정의와 환경정의(환경정의시민연대 심포지움 자료집).

전재경, 2000, 환경정의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

원 연구보고서.

최병두, 2001a, 포스트모던 생태학과 차이와 공생으로서의 환경정의, 대한지리학회지, 36(3), 292-312.

최병두, 2001b, 심층생태학과 생물평등 및 자아실현으로서의 환경정의, 공간과 사회, 16, 36-68.

한면희, 2000, 환경정의와 NGO 운동, 환경정의시민연대.

황경식, 1984, J.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철학, 22, 41-78.

Almond, Brenda, 1995, Rights and justice in the environment debate, in D.E. Cooper and J.A. Palmer (eds.), *Just Environments: Intergenerational, international and interspecies issues*, Routledge, London & New York, 3-20.

Baxter, Brian, 199, Environmental ethics - values or obligations? *Environmental Values*, 8, 107-112.

Bell, Derek R., 2003, Political liberalism and ecological justice, *Paper presented at ECPR General Conference, Environmental Politics Section, Panel 2: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Justice*, 19th September, 2003.

Bell, Derek, 2004, Environmental justice and Rawls' difference principle, *Environmental Ethics*, 26(3), 287-306.

Benjamin Davy, 1997, *Essential Injustice*, Springer, Wien/New York.

Coglianesi, C., 1998, Implications of liberal neutrality for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Ethics*, 20(1), 41-59.

diZerega, Gus, 1996, Deep ecology and liberalism: the greener implications of evolutionary liberal theory, *The Review of Politics*, 58(4), 699-734.

Dobson, Andrew, 2000, *Green Political Thought*, Routledge, London.

Elliot, R., 1984, Rawlsian Justice and Non-Human Animals,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1, 95-106.

Fisk, M., 1975, History and reason in Rawls' moral theory, in N. Daniels (ed), *Reading Rawls: Critical Studies on Rawls' Theory of Justice*, Blackwell, Oxford, 53-80.

Goodin, Robert, 1992, *Green Political Theory*,

- Cambridge: Polity Press.
- Hailwood, Simon A., 1999, Towards a liberal environment ?,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16(3), 271-281.
- Hailwood, Simon, A., 2003, A new green liberalism,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ECPR Conderence (Marburg, 18-21 Sep.2003), ecpr/events/generalconference/marburg/papers/8/2/Hailwood.pdf.
- Hare, R.M., 1974, Rawls' theory of justice, in N. Daniels, (eds), *Reading Rawls*, New York, Basic Books,
- Harsanyi, John, C., 1975, Can the maximum principle serve as a basis for morality ? A critique of John Rawls' Theor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2), 594-606.
- Hartley, Troy W., 1995, Environmental justice: an environmental civil rights value acceptable to all world views, *Environmental Ethics*, 17(3), 277-289.
- Harvey,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Arnold, London; 최병두 역, 1982, 사회정의와 도시, 종로서적.
- Harvey, 1996, *Justice, Nature, the Geography of Difference*, Blackwell, Oxford.
- Hayek, 1979, *Social Justice, Socialism and Democracy*, The 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 Sydney.
- Kant, I., *Vorlesungen uber Moralphilosophie*: 1978, 도덕철학강의, <도덕형이상학원론>, 박영사.
- Langhelle, Oluf, 2000,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expanding the Rawlsian framework of global justice, *Environmental Values*, 9(3), 295-323.
- Lee, Kee-kok, 1994, Awe and humility: intrinsic value in nature, beyond an earthbound environmental ethics, in Attfield, R. and Belsey, A. (eds), *Philosoph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Cambridge U.P., Cambridge, 89-102.
- Luper-Foy, Steven, 1992, Justice and Natural Resources, *Environmental Values*, 1. 47-64.
- Manning, R., 1981, Environmental ethics and Rawls' theory of justice, *Environmental Ethics*, 3, 155-66.
- Nozick, Robert, 1974, *Anarchy, State, Utopia*, New York, Basic Books.
- Pritchard, Michael. S. and Robinson, Wade, L., 1981, Justice and the treatment of animals: a critique of Rawls, *Environmental Ethics*, 3, 55-62.
-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황경식 역, 1989(개정판), 사회정의론, 서광사.
- Rawls, John, 1993,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P., New York.
- Rawls, John, 1999, *The Law of Peoples*, Harvard University Press.; 장동진 외 역, 2000, 만민법, 이퀄리오.
- Rawls, John, 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Harvard U.P., London.
- Regan, Tom, 1983,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California.
- Salvatore, Ingrid, 2004, Liberalism, pluralism, justice: An unresolved strain in the thought of John Rawls,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30(5-6), 623-641.
- Singer, Brent A., 1988, An extension of Rawls' theory of justice to environmental ethics, *Environmental Ethics*, 10, 217-31.
- Singer, Peter, 1990, *Animal Liberation*, New York, Avon Books.
- Smith, D. M., 1977, *Human Geography: A Welfare Geography*, Arnold, London.
- Thero, Daniel P., 1995, Rawls and environmental ethic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Environmental Ethics*, 17(1), 93-106.
- Wenz, Peter, 1988, *Environmental Justice*,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 Wissenburg, Marcel, 1998, *Green Liberalism: The Free and the Green Society*, UCL Press, London.

(접수 : 2005. 7. 12, 채택 : 2005. 8. 12)